

다니엘서 - 번호 100

이신칭의를 위한 계속되는 투쟁: 개신교 내 배교의 역사적 분석

Jeff Pippenger

2024-02-29

1888년의 반역 당시 존스 장로와 왜고너 장로가 전한 기별은 참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었다. 배도한 개신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공하신 칭의가 사람의 죄를 덮어 줄 뿐, 그분의 피가 실제로 그의 죄를 제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거짓 교리는 죄의 제거를 재림 때로 미루어, 그때 죄인들이 마치 마법처럼 변화된다고 본다. 배도한 개신교와, 1957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라오디게아적 재림교는,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대속자일 뿐 우리의 본보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1888년의 1년 전, 화잇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리라."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으며, 큰 빛과 기회를 받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은 자들이 가장 먼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여 떠나게 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들과 나라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활동은 예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해야 한다. 끝이 가깝다.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나라. 각 교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회심케 하는 능력이 경험되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죄 사함만이 예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 그분은 죄가 제거될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이 회복되고 다시 아름다워지며 폐허에서 재건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리스도는 야곱이 본 사다리로서 그 밑부분은 땅에 놓여 있었고 맨 꼭대기 디딤대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이는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사다리의 디딤대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한다. 우리 중 누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사다리의 디딤대를 붙들듯 예수님을 굳게 붙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셨다....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끔찍한 추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아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영혼을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빠뜨릴 수 있다. 하나의 죄는 둘째 죄로 이끌고, 둘째 죄는 셋째 죄의 길을 예비하며, 그와 같이 계속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들로서 그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본분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멸망으로 끝나는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길뿐이다. 곧 그리스도께 굳게 매달리고, 그의 품성의 완전성에 이르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되풀이해 말하는 이 착한 척하는 종교는, 죄인이 죄임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도록 부추긴다. 이것이 현재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다. 진리는 그들의 삶과 따로 떨어져 있으며, 그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을 책망하고 회심시키는 능력이 없다. 세상과 그 관습과 그 행습과 그 유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모든 신경과 정신과 근육을 다하여 힘써야 한다....

"당신이 죄를 버리고 살아 있는 믿음을 발휘하면,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선택된 메시지, 제3권, 155.

배도한 개신교의 거짓된 "착한 척하는 종교"는 1957년 재림주의 제4세대가 시작될 때 공식 교리로 확립되었다. 그것은 "죄인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는" 칭의의 정의를 제시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는 예수의 죽음의 유일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가르친다. 이는 "그분이 죄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 폐허에서 회복되고, 다시 아름다워지고, 재건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도록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1957년의 반역은, 1863년에 심겨 1888년에 싹이 트고, 이후 1919년에 출판된 책(그리스도의 교리)로 대표되는 거짓된 메시지로 물을 받으며 자라난 반역의 씨가, 마침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 준다. 곧 하박국의 두 판으로 대표되던 본래의 '의인의 믿음'이 이제 제거되고, 배도한 개신교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부패한 정의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열매였다. 유다에서 온 불순종한 선지자는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으로 돌아가 베델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먹었다.

1856년에 밀러주의자 운동에 처음 제시되었고 1888년에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제시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그 기별은 모든 과정에서 거절되었다. 화이트 자매에 따르면 라오디게아를 위한 기별이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던 존스와 왜그너의 그 기별은, 그것을 거절하던 반역자들이 사실은 옛 이정표들을 수호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명분 아래 거절되었다! 그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이정표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들 자신의 인위적 구성물로 된 토대였다.

1888년에 Jones와 Waggoner가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또한 성화된다는 것을 밝히는 참된 복음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메시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법적으로 거룩하다고 "선언"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Jones와 Waggoner의 이 메시지는, 1888년의 반역 이전 여러 해 동안 자신이 그렇게 전해 왔다고 화이트 자매가 밝힌 바와 같이, 칭의가 전가될 때 성화가 동시에 부여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가 모두 신자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칭의와 성화는 단지 신자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는 하나의 역사에 속한 두 요소를 가리키는 두 단어일 뿐이다.

고라의 반역자들이 거부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그 메시지였다. 그 메시지는 1856년에 다시 거부되었고, 1888년에 또다시 거부되었으며, 1957년에는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구원론으로 공개적으로 공식화되었다. 계속된 반역은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 이는 백성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며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계속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심판받는

백성)에게 보내진 메시지로 드러나는 영적 기만이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부자요, 재물이 늘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하기 직전에 있다.

1844년 첫 실망의 경험을 견뎌 낸, 예레미야서 15장 15절부터 21절에서 성전의 신실한 건축자들로 대표되는 밀러주의 역사 속의 신실한 자들은, '조롱자들의 회중'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결국 '조롱자들의 회중'(벤엘의 거짓 선지자로 대표됨)으로 돌아가 라오디게아인들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 버리심을 당하기 직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2001년 9월 11일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던 재림운동의 상태는 1840년 8월 11일 개신교의 상태로 예표되었다. 그 두 역사 또한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시비를 일삼던 유대인들로 예표되었다. 이 세 역사 모두에서, 한때 택함받은 백성은 제쳐졌고, 지금도 제쳐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침례 요한의 때에 '언약의 사자'는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이라 지칭한 이들과 언약을 맺으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9, 10.

베드로는 자기 시대의 새로운 선택된 백성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의 교회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모두 이전의 선택된 백성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규정하던 그 시기에 '선택된 세대'로 선택받았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마태복음 12:34.

지나가 버린 그 세대는 '독사의 세대'로, 사탄, 곧 성경 예언이 말하는 파충류를 상징한다. 지나가 버린 그 세대는 그들의 은혜의 때의 잔을 가득 채웠고, 네 세대에 걸쳐 독사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들은 창녀의 이마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의 스물다섯 명의 장로들이 태양에게 절하기를 기꺼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교황권의 품성을 형성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파되어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이나 그의 형상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같은 사상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13일.

짐승의 표는 불법의 사람의 표이며, 그는 로마의 교황이자 사탄의 지상 대리인이다. 짐승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독사로 상징되는 사탄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세속적 이익과 영예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의 호의와 지원을 구하도록 이끌렸으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사탄의 대리자 곧 로마의 주교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0.

한때 선택받았던 백성의 마지막 세대의 품성은 사탄의 품성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선택된 세대'는 시험과 정화와 정결의 과정을 통해 선택된다.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도록 선택된다. 주께서는 기독교회와 언약을 맺으셨고, 다시 밀러파 재림운동과도 언약을 맺으셨으며, 또다시 14만 4천과도 언약을 맺으신다.

주께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새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말라기 3장을 성취하는 세 시대 각각에는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 첫째 사자는 세레 요한이었으며, 그는 둘째와 셋째 사자를 예표했다. 둘째 사자는 윌리엄 밀러였다. 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의 예언적 특성은 함께,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십사만 사천과 언약을 맺으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특성을 정립한다.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전에 갑자기 오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세 사자는, 조사심판의 때에 성취되는 한 사업을 보여 주며, 그 조사심판은 집행심판에서 종결된다.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고, 내가 땅에서 활과 칼과 전쟁을 꺾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에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라. 참으로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라. 또한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나에게 정혼시키리니 네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 날에 이르러, 내가 응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늘에게 응답할 것이요, 하늘은 땅에게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할 것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하여 땅에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하리라.' 호세아 2:14-23.

'그날에, . . .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집에서 피한 자들은, . . . 진리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사야 10:20.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음이라'는 기별에 기꺼이 응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그들을 매어 두는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의 기념비로서 세상 앞에 설 것이다. 모든 신적 요구에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4:6-7, 12.

'보라, 날들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밭 가는 자가 거두는 자를 앞지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니;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흘려내리고, 모든 언덕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됨을 다시 되돌리고 [reverse],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그들이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또 동산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13-15.' 리뷰 앤 헤럴드, 1914년 2월 26일.

말라기 3장은 그리스도의 시대와 밀러파의 시대에 성취되었으며, 그 두 역사는 말세의 성취를 지목한다. 시스터 화이트는 말라기 3장의 성취를 그리스도의 성전 정결 사역과 연관시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회개한 죄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나타냈다.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은 이 땅의 성전을 두 번 정결하게 하셨다.

선지자는 말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으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Revelation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바로 그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이는 “그가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음이라”(Revelation 14:8).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곧 그의 거짓 교리들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고, 에덴에서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곧 영혼의 본래적 불멸이라는 거짓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많은 유사한 오류들을 널리 퍼뜨려 왔으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느니라”(Matthew 15:9).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성전을 모독적인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셨다. 그분의 봉사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신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그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모든 민족을 마시게 하였음이다’(요한계시록 14:8)이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요한계시록 18:4, 5) 하였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118.

말라기 3장의 성취에서, 세레 요한은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셔서 그것을 두 차례 정결케 하시도록 준비한 사자였다. 그의 삼 년 반의 사역 동안, 그는 사역의 시작과 끝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이로써 정결의 일이 끝을 나타내는 시작을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항상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의 사역과 일치하게 그 삼 년 반은 성전 정결로 시작되어 성전 정결로 마무리되었다.

삼 년 반의 기간이 끝날 때, 그는 언약을 확증하는 피를 흘리셨다. 이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하시고 그 이레의 중간에 끊어질 것이라는 다니엘 9장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다.

예수두 이레 후에 메시야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 때문이 아니며;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끝은 홍수와 함께 임할 것이며, 전쟁의

끝까지 황폐가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증할 것이며, 그 이레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함이 넘쳐 퍼짐으로 인해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종결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며, 작정된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26, 27.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써도 모자랄 것이다. 온 회의들 안에 같은 왜곡된 원칙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다. '그곳의 부자들은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곳의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혀는 입안에서 속이는도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관들에서 곧 뒤집고 또 뒤엎으실 것이다.

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오래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드신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을 도덕적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불의라도 행하는 모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을 위하여 맡아 이루신 속죄, 곧 구속에서 자신들의 몫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길을 택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겠습니까? 너희 분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러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득이 되겠습니까?

"배틀크리크에 그토록 많은 것을 집중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형편은 내게 경고로 보여졌던 바로 그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광경에 마음이 몹시 아프다. 주께서는 이러한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형편을 막기 위해 경고를 주셨으나, 그 경고들은 귀 기울여지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는 형제들에게 깨어나라고 호소한다. 속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처럼 중요하고 거룩한 사업에서 더 이상 관리자나 지도자를 맡아서는 안 된다. 다윗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특별 증언, 30, 31.